

## 「20세기 중국지식인 작가의 존재와 역할」

--1980,90년대 중국문학을 중심으로

### 1. 20세기 중국과 중국문학

20세기 중국문학의 시작이 인간 가치나 인간 자각의 발견과 중시에서 비롯되었다면, 현대대문학사 가운데 문학 외적 정치권력과 이데올로기는 실제로 그 발전과정에서 시종 지탱력과 방향타로서의 작용을 담당했다. 이것이 바로 20세기 중국문학의 특이한 질적 규정성 가운데 하나이다.

역사적으로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20세기 중국의 시공간이 각종 정치투쟁과 운동을 인위적으로 조성했기 때문이다. 후평(胡风), 라오서(老舍), 바진(巴金), 자오수리(赵树理), 선충원(沈从文), 덩링(丁玲), 위평바이(俞平伯), 루링(路翎), 우한(吴晗), 예젠누(聂绀弩), 량수밍(梁漱溟)과 왕명(王蒙) 등을 중심으로 하는 “다시 편 꽃”으로 불리우는 당대 중견작가들이 바로 현대대의 지식인작가, 사상가로서의 대표이다. 그들은 모두 일찍이 정치권력과 이데올로기에 의한 박해를 받은 바 있다. 어떤 의미에서 말하자면, 이 역시 중국 지식인의 역사적, 사회적, 현실적 특수성이기도 하다.

1990년대에 들어서 신시기문학 초엽의 중국 작가들이 일찍이 상상했던 유토피아와 문학존재의 근거가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이러한 현실 가운데 이상과 현실의 의의에 대한 설명은 상상감과 진부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최근 인문정신과 엘리트(精英)문화가 드러낸 내부결함에 대한 극복역량의 결핍과 89년 6.4천안문사태로 조성된 엘리트문화의 쇠락이 90년대 문학의 서곡을 형성하였다. 우리는 그 특색을 작가의 개인적 영역 확보에 대한 의도적 중시, 계몽과 사명감의 자각적 방기(즉, 지식인의 대 사회적 책임과 사명의식에 대한 주동적 포기)와 또 이로써 조성된 상대주의와 다원주의 문화양식으로 대체적으로 개괄한다.

문학이 비록 사람들에게 심령과 육체적으로 막대한 상처, 고통, 유린과 비참한 기억을 남겨놓았지만 전체 신시기문학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은 또한 일종의 무한하고 비옥한 문학의 창작 원천으로서 존재한다.

문학 후 최초로 문혁폐단을 고발한 작품으로 “바이화(白桦)의 『曙光』(1977.6), 리우신우(刘心武)의 『班主任』(1977.11), 쉬즈(徐迟)의 『哥得巴赫猜想』(1978.1)의 작품이 있다.” 이어서 이러한 류의 작품을 중심으로 문학이 만들어낸 상처와 고통을 반영한 작품이 우후죽순

격으로 출현했다. 이는 당시 정치사회적 요구와 문학창작의 욕구가 일치하여 이끌어낸 일종의 적극적 “공명(共名)”<sup>1)</sup>현상이었다. 즉 이 시기에 작가, 작품, 독자는 정치사회적 요구와 맞물려 일시적 부흥을 맞았던 것이다. 이밖에, 현실사회의 요구와 발걸음을 맞추어 현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성숙한 안목으로 해방 이래의 역사, 사회, 정치를 통찰하고 있는 작가군이 있었으니, 이들이 바로 중국공산당에 의한 세례를 받고 당의 문화교육을 받고 자라난 당대의 이른바 왕멍(王蒙), 장셴량(张贤亮), 장제(张洁), 리우사오탕(刘绍棠), 덩여우메이(邓友梅) 등의 제1대 작가군이였다. 왕멍(王蒙)은 이러한 창작 조류의 대표자라 할 수 있다. 그는 과거역사 정리를 목적으로 현실비판의 기초에 입각해서 당과 신중국의 성립 및 이러한 배경에서 자라난 자신의 아름다운 과거를 회고했다. 그가 보기에 신중국과 공산당은 그를 키워낸 요람이자 영원히 떨어질 수 없는 이상의 기탁처이기도 했다. 그가 역사와 이상에 언제나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졌던 까닭은 신중국, 당과 인민이 자신을 길러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바로 이러한 감정, 정서의 기초에 서서야 비로소 자연스럽게 역사와 미래사회에 대해 낙관적 긍정을 할 수 있었고, 신념과 이상은 가치 있는 것이라고 충분히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실 이는 왕멍 일개인에 한정된 개괄적 면모가 아니다. 왜냐하면 왕멍과 나이가 비슷한 대다수의 당대작가들도 이와 비교적 유사한 특징적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외로, 이 시기를 대표하는 지식청년(이하 ‘지청’)작가로 루신화(卢新华), 량샤오성(梁晓声), 콩제성(孔捷生), 왕안이(王安忆), 베이다오(北岛), 한샤오공(韩少功), 천젠공(陈建功), 정이(郑义) 등이 있다. 이들은 지청작가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당대 지식인 생활상태와 고뇌를 충분히 대표할 만한 작가들이다. 이 두 부류의 다른 작가군은 신시기 문단을 구성하는 주요 성원이다(그외의 여성 작가군).

문학예술형태의 전개를 통해서 정치역학과 이데올로기의 구체적 의미를 전개하는 것이 신시기문학의 현저한 특징 중 하나이다. 실제로 당시의 문학현상과 그 존재형태는 정치의식과 사회적 계몽사조와 혼재되어 있었다. 반사문학과 개혁문학이 그 예증이다.

1985년 이후, 신시기문학은 비로소 문학 외적 어떠한 역량에도 구속되지 않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 즉, 문학 자체의 내재적 변화법칙에

---

1) 陈思和, 「共名和无名」, 『写在子夜』, 11쪽. 그의 시대적 공명(共名)과 무명(无名)에 대한 해석은 전체 현대대문학의 발전윤곽을 파악하는 데 있어 매우 큰 작용을 한다. 그의 공명 개념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시대가 중대하고 통일적 주제를 함유하고 있을 때, 지식인이 문제를 사고하고 문제의 재료를 탐색하는 것은 모두 시대적 주제로부터 와서 개인의 독립성이 시대의 주제 아래에 가려지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공명’이라고 하고 이 상태 아래의 문화활동과 문학창조는 모두 ‘공명’의 파생이 된다.”

따라 정치, 사회적 부속적 지위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사실, 이러한 변화는 한편으로는 문학창작자와 이론가들의 문학예술 자체에 대한 탐구와 연구 성과의 누적에 힘 입는 바 컸고, 주요하게는 문학 자체의 내부적 발전 법칙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에 더욱 크게 힘입었다.

문학과 과거 역사에 대한 반사사조에서 개혁과 그 결함을 바로잡으려는 “개혁소설(改革小说)”로의 전환, 이어서 전통의 뿌리 가운데서 개혁방식을 찾으려는 이른바 “뿌리찾기소설(寻根小说)”이 나타났다.” “1985년의 문학은 두 가지 큰 조류가 있다. 하나는 ‘문화뿌리찾기(文化寻根)’사조이고, 다른 하나는 ‘현대파(现代派)’사조이다.”<sup>2)</sup>

신시기문학은 85년을 전후하여 그 이전과 판이하게 다른 새로운 문학세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문화역사의 근원을 탐색하고 추구하면서 전위의식을 주제로 삼는 뿌리찾기문학(寻根文学), 현대파소설의 고조는 어떤 의미에서 문학 자신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사회적 양지의 대표이자 주체적 역량으로서의 지식인은 줄곧 자유사상을 선전하고 제고하는 계몽과 인도적 입장의 전열에서 있었다. 그러나 왕쑤(王朔)의 지식인에 대한 경시와 반감, 리우진윈(刘震云) 소설 중 평범하고 무능력한 지식인 샤오린(小林), 자핑아오(贾平凹) 붓끝의 한인(闲人)과 문인형 지식인 왕즈데(庄之蝶)의 탄생은 바로 지식인 자체 입장의 포기과 그 가치관념 무화가 반영한 문학에서의 인문정신 위기 상황이다. 동시에, 이는 현대파 이래 신사실소설까지를 묘사한 한 폭의 구도로서, 인문의식의 퇴조와 지식인의 주변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비록 그 사이에 장청즈(张承志), 장웨이(张伟), 리루이(李锐) 등과 같은 작가들처럼 이상에 대한 부단한 추구를 자신의 존재와 의미로서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소수일뿐더러, 그들의 역량도 사회의 중심 조류에 훨씬 미치지 못하거나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그렇지만 그들의 자신에 대한 신념은 확고부동한 것이었다. 그들은 모두 현실, 세속과 거리를 유지하고 또 사회비판을 잊지 않았다. 그들은 목전의 보편적 가치지향, 인문정신의 구체적 존재형태와 상황에 대해 부단히 사고하고 모색하며 나아가 자신의 뜻, 이상에 따라 문화의 가장자리에서 묵묵하게 그 개인적 특색을 지닌 인문정신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실천행위와 방식을 전체 문화중심 추세의 각도에서 말하자면, 정말 보잘 것 없는 것이지만, 그들의 인간과 삶, 그리고 문학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구체적 탐색실천은 영원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아울러 90년대 이후까지 계속된 이에 대한 일관된 추구는 그들로 하여금 시대문화적 협애성과 세속성을 초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들은 인문정신을 지키는 용사이자 인문정신의 최후보루였다.

2) 陈思和, 『笔走龙蛇』, 业强出版社, 1991, 3쪽.

이와 비교해보면, 왕쑤(王朔)의 소설은 사회중심조류와 주변에 처해있는 소극적 사회심태를 비교적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는 85년부터 중국사회의 풍속화를 묘사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개인은 자본주의욕망의 체현자와 물질문화의 수혜자로서의 기본적인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역사와 이상 그리고 인간에 대한 반성과 비판은 모두 이 시기 자본상품경제시장의 위력에 의해 점차 가장자리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소위 ‘이상의 상실’이라 함은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동경 대상의 상실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는 이상적 존재 혹은 지속이 해체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80년대 중후반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인문정신과 이상의 문제를 빈번하게 논한 바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시기가 이전과 현저히 다른 질적 변화가 발생했음에 대한 증명이며, 사람들의 이에 대한 보편적 감각 역시 표현되어 나왔다. 변화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간단히 말하자면 심미의식의 전변, 사회구조적 메커니즘의 변화에서 야기된 사람들의 보편적 가치지향의 전변, 지식인의 내부 의식관념의 동요 등에서 기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80년대는 정치와 그 언어형태체계를 중심으로 관념화된 이상신념을 특징으로 했던 시대였다. 때문에 80년대 문학에 부착되어 있던 풍부한 이데올로기형태, 계몽주의적 정신입장이 분명히 드러났고, 또 인간과 사회에 대해 철리적 의의가 있었다. 이에 비해서, 90년대 문학은 문화출판, 경제자본, 상업이윤, 대중매체 및 소비오락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다원화시대이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체 사회의 관심과 가치지향은 문학 이외의 사회문화 오락방면으로 급격히 확산되었다. 이러한 사회문화의 분위기는 직접적으로 사람들의 사유관념에 영향을 미쳤다. 때문에 사람들이 즐겨 보고 듣는 것은 더 이상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나 또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 혹은 이러한 분위기가 있는 문학과 그 작품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계도하고 비판해 줄 사회적 존재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들은 다만 잉여적 존재일 뿐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물론 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지식인과 엘리트의식은 자연스럽게 가장자리로 밀려났으며, 문학의 사회적 존재위상은 사실상 일찍이 하향 조정되었다. 지금은 다만 문학 자체의 관념이 이에 따른 재조정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사회적 의미에서의 계도자, 감독자, 비판자 역할을 담당했던 80년대 문학은 이때에 이르러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었다. 그러나 지식인 자신들은 이전의 이러한 존재적 각색과 관념방식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혼돈 중에서 배회하고 있었기에, 일순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눈앞의 현실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했다. 이 시기 중국 사회는 상품과 대중매체가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대중의 무의식과 욕망이 상

품논리에 의해 삼켜지고 있었다. 양지가 있는 지식인들은 이에 대해 비판적이고 자성적인 경고를 하였지만, 물질만능의 현실이라는 대조류 앞에서는 실제로 기성문화의 대세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들은 철저히 실망하고 자신의 무능력을 절감했다. “현실적 곤궁과 생존의 압력 아래, 지식인의 계몽과 구세의 책임은 의심받고 거절당했다.”<sup>3)</sup>

## 2. 중국작가협회(이하 작협<sup>4)</sup>)와 중국작가

1950에서 1970년대까지의 문학은 관료에 의한 통제와 정치 이데올로기로의 편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당 관료들이 ‘사회주의문예개념의 건설, 보급(유통) 과정을 장악하고 운용했다.

작협의 성립은 사실상 마오쩌둥의 문예관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문예의 정치성, 인민성의 중시와 강조를 위하여 저우양(周扬)은 제1차 문 대회에서 “사상지도 외에도 문예사업에 대한 조직적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귀모뤄(郭沫若) 역시 “문화예술 부분을 관리하는 조직기구를 조속히 발족시킬 것”을 제의했다. 그 결과 중국문학예술계 연합회[전국‘문련’]와 중국작가협회[‘작협’]<sup>5)</sup> 등이 탄생했다.

문련의 원래 명칭은 중화전국 문학예술계 연합회(郭沫若 주석)에서 1953년 9월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단체 회원제 채택 -- 한국의 학술단체협의회처럼) 그 산하의 여러 단체 회는 작가협회, 음악가협회, 희곡작가협회, 미술가협회 등이 있었다.

작협은 1947년 7월에 발족되었다. 창립 시에 ‘중화전국문학공작자협회’라 하였다가 1953년 9월에 현재의 이름으로 바꾸었다. 작협은 기타 협회와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조직이었으나, 1950-60년대의 작가와 예술가 단체 중에서 가장 중요했으며, 나중에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에 연이어 분회가 창설되었다. 그 성격과 기능을 논하자면 다음과 같다. 중국작가협회 규정에서는 성격을 ‘중국 작가들이 자원해서 만들어진 군중단체’라고 하였지만, 실제상황은 완전히 이에 부합되지 않은 않았다.(중국작가의 문학활동을 정치와 예술방면에서 지도하고 통제하는 기구였으며, 작가들 간의 예술교류, 창작활동, 생활 등을 협조하고 조직하며 어떤 권익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는 역할도 담당, 창립 때부터 문화대혁명 종결까지 茅盾이 주석 역임)

작협은 중공 중앙선전부에게서 직접 지도를 받았다. 실제적인 지도

3) 蔡翔, 『日常生活的诗情消解』(写在前面), 2쪽.

4) 작협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洪子诚의 『中国当代文学史』에 의존하여 기술하였다.

5) 당대 중국에서 문예에 대한 국가의 지도와 통제는 주로 문화와 선전의 지도 부문을 통해 진행되었다.

권은 중앙 선전부 및 중국 작가협회의 ‘당조직’에 있었다.(기간지 : 『文艺报』, 『人民文学』, 『诗刊』, 『새로운 관찰(新观察)』, 『民族文学』 등) -- 문련과 작협은 마오쩌둥의 직접적인 개입 아래 일련의 비판 투쟁과 문학운동을 일으키고 지도하였으며, 각 시기마다 작가가 창작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상 예술의 노선을 제시하였다.

문련과 작협은 1940년대 구소련의 스탈린 시대 - 주다노프식의 구소련의 문예계 상황을 본받아 관방을 대표하여 작가와 작품 혹은 예술문제에 대해 결의문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결론적인 판결을 내리곤 하였다. 이런 연유로 문예비평은 투쟁 수단으로서 운용되었고, 문학과 정치권력이 완전히 뒤섞이면서 위로부터의 비판과 통제 속에서 전국적 범위의 여론을 주도하였다. (武训传에 대한 비판, 俞平伯의 ‘홍루몽’연구에 대한 비판, 후평과 문예계의 ‘우파’에 대한 비평 등) 또한 문예는 자의적 판단기준에 의한 비평기준은 존재하기 어려웠다.

재미있는 것은 당대작가의 경제적 수입원천이 원고료였다는 사실이다.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문학창작은 돈과 상업성과는 무관한 사업으로 인식되어, 작가는 ‘인류영혼의 기술자’로 불리워졌고, 문학작품은 ‘생활의 교과서’였다. 그러나 현실적 생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49년 이전의 원고료와 인세에 의지했던 상황이 50년대에는 점차 인세를 폐지하고 원고료 제도(저작권에서 응당 얻어야 할 경제적 이익을 상실하게 함)를 실시하였고, 50년대 중반에는 원고료 제도가 전국적인 간행물사와 출판사에서 실행되었다. 원고료의 지급규정을 살펴보면, 초고를 ‘저작’, ‘번역’ 등으로 분류하여, 1000자를 고료 지불의 기본단위(한국의 경우 200자 원고지 1매 기준)로 정하여 통일된 원고료 등급을 나누어서 규정하였고, 이외에도 서적의 출판에서 ‘책정된 출판부수’제도를 정하였다.

당대 중국에서 작가는 비록 풍부한 수입을 얻기는 어려웠지만 매혹적인 직업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작품 고료 외의 다른 수입경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50년대부터 모든 작가들은 어떤 조직과 기구든지 소속되었고 국가의 ‘간부’가 되었으며, 이로써 그들은 고정된 봉급을 받게 되었다. 그 구체적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작가가 대학이나 연구기구에 속하거나(또는 이전부터 대학 등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거나), 문학이나 문화단체, 기관을 지도하는 것이었다. 이는 작가의 ‘제2직업’ 혹은 ‘겸임직책’(그중 일부 사람들로서는 대학교수, 연구소의 연구원, 출판사의 편집인, 문화 기관의 관리가 주된 직업이고 창작이 오히려 ‘제2의 직업’이 되었다)이었다. 2) 또 다른 일부 작가는 비록 어떤 조직과 단체에 속하기는 하였으나 이런 ‘겸임’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었으며, 다만 명예직일 뿐이었다. (3) 중국 작협과 각 지방 분회가 모두 ‘전업 작가’와 ‘작가협회 상임작가’의 편제를 지닌 것이었다. 이 작가들은 대부분 정력을 작품 창작에 기울였다.

이상의 상황에 해당하는 작가들은 모두 고정된 봉급이 있었다. 그러므로 ‘전업작가’가 오랫동안 창작을 하지 않고 작품을 발표하거나 출판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심각한 생계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그러한 안락함의 이면에는 무시무시한 함정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의 몇 가지 상황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겸직’의 보편적 현상으로 ‘제2직업’이 가져다주는 정치 경제 면에서의 안정감은 작가들에게 어떤 경우 창작의 긴장감을 사라지게 하거나 본디 작가가 부담해야 될 책임감을 느슨하게 하는 작용하여, 그들 중의 일부가 다년간 창작을 않고도 지난날의 ‘명성’에만 의지해 생활하게 하였다.

(2) 50-60년대 작가의 사회적 지위 상승은 문예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던 당시의 분위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많은 유명 작가들은 각종 기구(여러 사회조직에서 정부 중앙의 기구에 이르기까지)의 책임자로 위임되었고 여러 직위 호칭을 수여받았으며, 그다지 큰 권력은 없는 그런 직무들(시 부녀연합회 위원, 노동조합위원, 청년단조직위원, 정치협상회의 위원, 인민대표대회 대표,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위원)에 위임되기도 하였다.

(3) 정치적인 힘은 그들을 본래 그들과 상관없는 자리로까지 밀어 올려놓았고, 어떻게 이러한 ‘명성’과 ‘자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까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고민거리가 되었다. 이런 식의 대접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궁극적으로 그들 사상과 예술의 창조력과 정신의 독립을 희생하게 하여, 이로써 이러한 사회지위를 유지하는 조건과 맞바꾸도록 했을 터였다.

(4) 이런 시대적으로 절대화된 정치역량의 자장 속에서 중국작가들은 확립된 문학규범과 노선에 대해 다른 의견을 표시하거나 반항하거나 도전했을 때, 그 물질적 사회정치적 지위는 일순간에 사라질 위험이 항상 공존했다. 보통 징벌의 조치는 작가협회 회원 자격에서 제명(이것은 창작할 권리의 상실을 의미), 좌천이나 감봉을 당했으며, 공장이나 농촌, 변방의 농장으로 하방(下放)되어 노동 개조를 하게 되며, 공직에서 면직되거나(고정된 직업을 잃어버림), 감옥에 들어가고 노동개조 농장에 들어가기까지 하였다.

이 시기 중국문학에서 작협은 작가들에게는 절대적 존재였다. 안정과 풍요로운 생활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작가들은 조직적 통제와 구속을 강요당했기 때문이었다. 작가 입장에서 보면 작협은 필요악이 아닐 수 없었다.

1980,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작협의 위상과 기능은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다. 기존에 작협 가입 여부가 작가의 존재와 권위 및 명성의 절대적 기준이었다면, 이 시기에 들어서 그 위상이 동요되기 시작했다

던 것이다. 예컨대, 왕취의 창작과 영향력을 보게 되면 이 시기 동안 문단에서 안하무인격으로 제멋대로 굴었다. 시대의 반항아인 동시에, 문단의 이단아인 셈이었다. 한 마디로 작협 입장에서는 눈엣가시가 아닐 수 없었지만, 그는 당당히 그 시대의 아이콘처럼 그렇게 존재했다. 그는 작협 소속이 아니었지만, 작협 소속의 작가 못지 않게 유능했고 영향력이 있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매체의 출현이 이어지자 작협의 위상은 더욱 절박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기존 1980년대까지의 문학매체를 통한 작가들의 발굴과 양성의 다른 측면에서 동시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절대 다수 독자대중들의 전폭적 관심과 열기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던 것이다. 그들의 관심은 이미 다양한 문화산업으로 흡수되어 분산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텔레비전 드라마, 영화, 인터넷을 위시한 시장화와 상업화 국면 속에서 작협의 위상은 초라하게만 보일 뿐이다. 21세기 들어 한한(韓寒)과 같은 인터넷문학 청년작가를 영입하려는 작협의 노력도 어찌면 물어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몸부림 같아 보인다.

### 3. 중국 지식인작가의 역할에 대하여

인문정신의 위기와 지식인의 가치관념의 무화가 가져온 이상소실의 분위기 아래, 문학예술과 지식인의 중심엘리트의 위상에서의 이탈은 불문가지의 사실이었다. 80년대 말에 다가서면서 지식인들이 자신의 내부문제에 대해서 분열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특히 1989년 이후, 보수적 지식인이 국가기관 내부의 개혁과 내지 기술관료가 되거나 현대화 관념형태의 신보수주의 관망 이념형태의 대변인이 되자, 급진적이데올로기를 가진 모든 지식인은 그 반대파가 되었다. 상업이윤의 중시와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은 사회구조방면에 현저한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경제는 부단히 확대 발전되었고, 시민계층과 그의 의식관념 역시 점차 머리를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물욕과 배금주의, 개인주의(좀더 정확히 말해서 이기주의), 무가치, 무주의, 무의식형태 등이 다원적으로 한 데 뒤섞이고, 아울러 기존의 계몽과 이성, 문화와 역사, 인간과 인성에 대한 강조의 위치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형세의 면에서 말하자면, 이미 안정적 국면을 기본적으로 형성하였다. 만일 사람들의 생활이 모두 보장을 받아 무사태평하다면 어느 누가 다른 무엇을 구하려 할 것인가? 이같은 가설은 너무 지나친 개인화와 세속화된 사회심리라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당시 문화심리의 어떤 본질적 특색을 대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세대 중, 지식인의 사회적 의의와 기능, 심지어 그 존재 자체가 모두 환영을 받지 못한다면, 지식인의 가치와 의

미는 자신의 존재근거와 의의를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심지어 “인문정신의 위기”, “문화실망”등으로 목전 현상을 개괄한 지식인들 본인마저도 시대적 무력감과 공허감 속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인문정신의 위기 자체에 대해서 아무런 메아리가 없고, 계몽주의가 시들해진 이후의 공허한 사상적 배경 속에서 거대한 초국경 자본주의 시장이 수반하고 있는 퇴폐주의와 허무주의가 전체 사회에 미만해 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현재의 중국문학을 전지구적 초국경 자본주의적 논리를 벗어나 논하게 되면 그 문학예술의 핵심을 논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자평아오(贾平凹)와 『废都』의 쟡즈데(庄之蝶)는 이 시기의 대표적 존재이자 세기말 문학의 이정표로서 다음 세기에까지 전승될 것이다. 작품인물이 나타낸 심태의 측면에서 보자면, 왕쑤(王朔)와 자평아오(贾平凹)는 비교적 근접한다. 물론 두 사람이 걸었던 문학적 도로와 추구한 풍격이 크게 다르지만, 그들의 입세(入世와) 처세(处世)의 방식 및 사회현실에 대한 견해는 일정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리우전윈(刘震云)은 초기 창작 중 세속에 지향했던 칼날을 이 시기에 이르러 정치권력의 무한한 욕망과 현실 중의 그 의미의 층위해석으로 옮겼다. 그의 중국현실, 역사, 정치에 대한 투시력은 모두 그 자신의 자아, 민중생활과 권력형태에 대한 진지하고도 심각한 사유결과에 의지하고 있다. 장청즈(张承志)와 장웨이(张伟) 두 사람이 걸었던 길과 그 방법 및 선택방식은 그들과 확연히 다르다. 쟡청즈의 신성과 숭고에 대한 일관된 추구, 장웨이의 순결과 용기에 대한 선택 가운데, 그들이 선언한 세속과의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고, 그중의 본질적 핵심을 직시했음과 두 사람이 세속문화를 완강하게 거절, 부정, 반대하고 더 나아가 그에 대해 심령의 투쟁을 전개하였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장청즈의 고독한 오기와 걱정은 대체적으로 장웨이의 분노와 거절과 대단히 흡사하다. 그들의 눈에는 현실과 세속은 한 사물의 두 면으로서 추악하고 혼탁한 사회현실은 그들이 세계에 참여하기를 허락하지 않았다. 세속“초월”은 그들의 선택방식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로써 그들의 개인화된 인문정신을 실현하고 있다. 내가 알기로는 그들의 인문정신은 그들 각자의 실천이력을 통해서 배양되어 나온 것이다. 두 사람은 목전 사회에서 소실된 인문정신에 대해서, 이중인격, 인격분열, 심지어 인격을 중시하지 않는 사람들의 금전 물질에 대한 무한한 선망의 시선을 그 누구보다도 철저히 꿰뚫어보고 있었으며, 그들은 동시에 이 세계에서 반드시 사회적, 역사적 사명을 달갑게 질 사람이 있음을 믿어마지 않고, 온갖 역경을 헤쳐 앞으로 계속 나아갔다. 오늘날 대중소비문화 면전에서, 문학과 인생의 구체적 선택방식이 만들어낸 혹자의 개괄은 매우 흥미롭다. “현재의 문제는 대중소비문화에서의 당대문학이 일종의 보편적 문화현상이 되었을 때, 어떻게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작가가 어떻게 하나의 문화소비의 채널이 특별히 많은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존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나는 베스트셀러이든지 엘리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작품의 방식이다. 화끈하던지 아니면 고독하던지 이것이 인생의 태도이다. 구체적으로 왕쑤(王朔)이든지, 장청즈(张承志)이어야 하는 것이다.”<sup>6)</sup>

이밖의 문학세계는 대체로 극단적으로 작가 개인화의 영역 구축 경향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를 통해 자아존재의 가치와 의의를 확인토록 한다. 동시에 욕망 본원의 구조와 특징에 대한 탐구, 자아존재의 한계에 대한 깊은 깨달음, 대립세계에 대한 부적응과 그에 대해 표시한 노골적 반감 역시 세기말 중국문학이 발굴해낸 새로운 문학사상과 제재영역이다. 어떤 의미에서 말하자면 그들은 마치 90년대 문학을 위해서 출현한 일군의 작가 같다. 물론 이는 완전히 결과론의 각도에서 말한 것에 불과하다. 왕안이(王安忆)의 문학적 창신은 1990년대 문학과 함께 시작된다. 표면적으로 볼 때, 최근 그녀의 사작방식과 내용 및 풍격은 이전과 현저하게 달라 보인다. 그러나 사실 꼭 그렇지 않다. 그녀의 인간, 성, 지식인, 엘리트의식에 대한 사색은 상당한 심도와 역량을 구비하고 있다. 현실과 고정된 모식에의 거절을 통해 그녀는 세계를 새롭게 세우려고 하였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그녀의 사작 패턴과 범주는 독특하고도 심원하다. 장신신(张辛欣)은 90년대 작가에 속하지 않지만 그녀의 서사는 이후 여성작가들의 사작에 일련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그러므로 그녀는 90년대 여성문학으로 들어가는 교량작용을 하였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90년대문학은 천란(陈染), 린바이(林白), 쉬샤오빈(徐小斌) 등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녀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여성의 자아해방의식을 추구하여 일정 정도로 여성 자아존재 의미, 욕망에 대한 각성된 의식을 제고시켰다. 특히, 린바이, 쉬샤오빈 두 사람은 각각 서로 다르게 그 고유의 심미세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것은 물론 여성자아존재 욕망에 대한 긍정과 중시에서 완성될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밖에 장쑤(江苏)의 주윈(朱文), 루양(鲁羊), 한둥(韩东)과 베이징의 치우화둥(邱华栋), 딩텐(丁天)과 상하이(上海)의 장민(张旻), 광시(广西)의 리핑(李冯), 후남(湖南)의 허둔(何顿), 그리고 푸젠(福建)의 베이촌(北村) 등이 중심이 된 신세대작가의 창작특징은 한국문학 신세대작가군과 그 사작상의 일련의 특색을 상기시킨다. 이는 상당한 정도에서 신세대 젊은이들의 보편적 의식관념과 가치지향에서 기인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사작특징은 자아문제, 개인 실존의의의 탐색 층위에 있으며, 아무런 구속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식의 무절제한 자유를 표현하고 심각한 사고의 거부와 감관세계에의 탐닉, 적나라한 성애묘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그들 작품 중

6) 谢泳, 「要麼王朔 要麼张承志」, 166쪽.

의 농후한 허무, 고독한 색채는 그들의 부친하고 불안정한 생활과 의식의 한 거울이기도 하다. 이로써 이상의 양국문학창작경향은 대부분 초국경 자본주의가 전 세계를 관통하는 과정 중에 야기한 필연적 현상이다. 그러므로 일정 한도에서 90년대의 중국문학을 논할 때, 이러한 전 지구적 객관배경을 떠나서는 그 본질적 특징을 논할 길이 없는 것이다.

#### 4. 지식인과 중국 지식인작가의 구체적 함의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식인을 거론하게 되면 즉각 교육, 문화, 지식계에 운집해 있는 군체를 연상하게 된다. 그러나 “구체적 직업적 역할 혹은 사회적 기능구분에서 볼 때, 지식인은 대개 최소한 두 종류의 유형으로 획분할 수 있다. 한 종류는 이론형의 지식인으로서 철학자, 문학자, 사회과학자, 이론에 종사하는 자연과학자 등등이다. 그들의 기본 사명은 각종의 추상적 가치부호체계를 창조하고 각 학과, 각 영역의 기본적 이론 틀을 세우는 데 있다. 다른 한 종류의 지식인은 조작형 지식인으로서 엔지니어, 임상 의사, 예술연기자, 발명에 종사하는 자연과학자 등등이다. 그들의 주요직책은 일정한 이론적 규범의 지도 아래, 사회화의 조작 운용을 진행하는 것으로서 추상적 가치부호를 구체적 조작구상 혹은 생산품의 모형으로 바꾸는 것이다.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만약 이론형 지식인이 사회경제생활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조작형 지식인의 생활구역은 경제생활의 언저리에 가까이 접근해 있다는 점이다.”<sup>7)</sup> 그중 적지 않은 사람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지식인이라 부를 수 없다. 지식인의 분류는 다만 사회성원 중의 점유비율과 문화지식 수혜의 환경에서야 의미가 있다. 정확히 말해서 사회기층 성원 중에서 문화교육을 받은 수혜자도 자연발생 층위상의 지식자 군체일 뿐이다. 그들 가운데서 자아의 사회, 역사, 국가, 민족, 인류에 대한 사명을 자각적으로 의식하고 또 각종의 공익, 책임에 주동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떠맡으려는 사람들이라야 지식인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전혀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의의를 사회, 세계, 인류의 보편적 존재가치와 동일시한다. 그들의 무형적 가치형태에 대한 집요한 추구, 인류사회에 대한 보편적 관심을 일컬어 양지(良知)라 한다. 양지야말로 지식인 존재의 핵심적 근거이다. 그것이 없으면 지식인은 자신의 존재기반 역시 존재할 수 없다. 지금 중국사회가 당면해 있는 각종의 인문위기 역시 이러한 양지에 대한 일련의 충격과 폄하 때문이다. 지식인의 자아존재 가치가 의심 받을 때, 그들의 내심은 더 이상 평형을 유지할 수 없다. 그들의 동요, 방황, 혼돈은 의심할 나위 없이 동시대 사회문화의 전체적 패턴에서 유래한다. 시대의 선두에서,

7) 许纪霖, 「两种知识分子的类型」, 『智者的尊严』, 77页.

문화의 전위에서 지식인의 몸부림은 반드시 우리들이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보자면, 그것을 장구한 역사의 흐름 중에서의 하나의 소용돌이로서 말할 수 있을 것이며, 공간적으로 말하자면 서유럽 선진국들이 발전 중 겪었던 일시적 혼돈으로도 비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옌푸(严复), 왕귀웨이(王国维), 강여우웨이(康有为), 량치차오(梁启超) 등을 20세기 제1대 중국 지식인이라고 하는 관건적 이유는 그들이 사회적, 역사적, 정치적 원대한 포부를 당대 사회지식인의 책임감, 사명감과 서로 결합시켜 자아 존재의의와 가치지향의 통일을 주동적으로 실현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만들어낸 정신적 전통은 다시 장위안지(张元济), 천두슈(陈独秀), 루쉰(鲁迅), 마오둔(茅盾), 귀뤄뤄(郭沫若), 청팡우(成仿吾), 펑쉐펑(冯雪峰), 쉰치우바이(瞿秋白) 등의 사람들로 이어져 계승된다. 개인적 층위에서의 인격수양에서 문화 사회적 전통정신의 함양까지, 그리고 당대 혁명지도자로서의 품성도야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모두 모범적인 지식인의 풍모를 갖추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지식인에 대한 개념정의는 우선적으로 그가 특정분야에 있어서 전문지식을 구비한 사람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약간의 지식을 소유했다는 이 사실이 그가 지식인임을 의미할 수는 없다. 이로써 알 수 있는 바는 지식이 사회를 지향하고 지식이 사회에 “유용한” 공헌을 할 때라야만 비로소 그것을 지식인 함의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 인정할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를 보편화해보면, 지식인이 소유한 지식이 사회와 각종 사건 혹은 현상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이러한 능력을 가진 인재가 “양지”를 가진 지식인의 후보자가 될 자격이 있다. 지식인은 사회양지의 대표자이다. 그의 사회적 책임과 기능은 전체 사회의 수많은 현상을 교화하고 감독하는 것이다. 이로써 그가 그 사회양심의 일면을 대표할 수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지식인의 개념정의는 지식인의 정신자세와 생활태도를 따로 포함한다. 그의 사유세계는 통상 자아 일신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사회, 국가 혹은 전 인류사회의 모든 현상에까지 관심을 기울인다. 이와 동시에, 그는 또한 민족, 사회, 역사를 위하여, 진리를 추구하고 수호하기 위하여 자기희생도 감수하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그의 정신적 태도의 각도에서 보자면, “한 지식인 그는 자신의 이해(理解)와 경험을 넘어 전체 사회, 인류의 생존에 관심을 기울이고, 인문가치(人文价值)의 수호자이자 체현자이다. 그는 인간의 존엄을 능욕하고 진리와 정의 및 그의 인문이상(人文理想)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 비타협적 투쟁을 불사한다.”<sup>8)</sup> “지식인은 결국 한 사회의 경제적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문화

8) 王彬彬, 「当代中国知识者的主体定位」, 『在功利与唯美之间』, 学林出版社, 1996, 4쪽.

가치체계의 상징으로 인류사회 중 최고의 문화층차를 대표하고 미래와 영원에 대해서도 모두 의의가 있다. 사회가 얼마나 퇴폐적이고 타락했는가에 관계없이 진정한 지식인이 존재하는 한 문화의 정기와 혈맥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식인이라는 이 한 사회계층이 기타 사회계층과의 다른 점이라면, 자신의 계층의 협소한 이익을 넘어서 비공리적인 것에서의 관심을 기울인다는 데 있다. 이 관심은 사회적 것이자 문화적이다. 또한 목전의 것이자 장기적인 것이다. 지식인 한 몸에는 두 가지 큰 사명을 지고 있다. ‘사회의 양심’과 ‘문화적 정화’가 바로 그것이다. ‘사회의 양심’으로서 지식인은 기타 사회의 이익단체와 똑같이 공공사업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의 이익과 공리의 속박을 벗어나 진 사회, 진 민족, 진 인류라는 거시적 안목으로 문제를 관조함으로써 ‘공공양심’을 드러내야 한다.”<sup>9)</sup>

요컨대, 현대 지식인의 ‘이상적 유형’은 다음과 같이 집약될 수 있다. “첫째, 본위의식면에서 자아의 수요를 본위로 하고, 둘째, 사유방식면에서 과학과 이성을 견지하며, 셋째, 행위모식 면에서 사회적 책임감이 풍부해야 한다.”<sup>10)</sup>

“한 국가의 민족이 반성정신이 있느냐 없느냐는 통치자가 얼마나 유능한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지식인의 정신전통이 어느 정도로 발달되었는지, 교육, 학술, 출판, 전파매체 등이 지식인의 자리에서 한 민족의 가장 우수한 사상문화가 어느 정도로 잘 보존되어왔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이를 통해서 사회와 그 통치자의 특정한 이성적 방향성에 대해 제약을 이루기 때문이다.”<sup>11)</sup> 이로써 근간 이른바 “‘人文精神’、‘价值重建’、‘理想精神’ 등의 문제가 제기된 것도 바로 사회 가치관념이 결핍된 배경에서 일어난 것이다.”<sup>12)</sup>

우리 눈앞에 전개된 것은 이미 중심에서 주변으로, 계몽에서 상실과 포기, 엘리트에서 속물로, 군체화에서 개별화로의 사회문화적 전체 국면이다. 이는 1990년대 중국 사회의 일반적 특징이자 사상문화앞에 의연하게 서있는 중국 지식인의 현실적 배경처럼 보인다. 현재 중국지식인이 당면한 실제 상황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회에 대한 사명과 책임감을 더 이상 귀중하게 여기지 않게 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비록 스스로 지식인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을 간직하고자 하지만 사회의 보편적 가치지향점은 그들이 문화중심에 서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들의 인도를 받아들이려 들지 않으며 차츰 그들의 입지를

9) 许纪霖, 「商品经济挑战下的应战姿态」, 『智者的尊严』, 82-83쪽.

10) 许纪霖, 「现代知识分子的“理想类型”」, 『智者的尊严』, 70쪽.

11) 陈思和, 『犬耕集』自序, 2-3쪽.

12) 孟繁华, 「新理想主义与知识分子意识形态」(王晓明编, 『人文精神寻思录』, 文汇出版社, 1996, 250-251쪽.

와해시켜가고 있다. 현금의 사회는 더 이상 지식, 문화, 양지를 가진 지식인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지식인에게 스스로 노력하여 게을리 하지 말고 자급자족하라는 요구는 무정하고 냉혹한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 그들은 상업화된 현대성의 사회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뿐만 아니라 기타 사회의 모든 성원 역시 모두 이 현대화, 상품화된 사회가 필요로 하는 부속품이다. 도시공업화 사회 또는 대중의 대량 소비사회의 체계 속에서 이러한 사회의 생산방식, 운행기제가 가져온 일시적 제한과 속박은 어떤 사람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시대에서의 사회문화적 모든 것은 그저 상품으로서 교환가치를 가진 대상으로서만 존재할 뿐이다. 이것이 사회문화의 전환기이다. 이러한 시대문화의 환경 속에서 지식인의 급속한 관념변화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는 물론자신의 분야에 굳건히 서서 자신의 사회에 대한 유용가치로써 신성한 사명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관건은 현실에 존재하는 각종 문제에 대하여 심각한 분석을 하여 과학적 방법을 찾아내어 실질적 관념의식의 변화로써 이러한 변화가 가져온 여러 가지 가치부재에 대처하는 것이다. 부단히 변화하는 현실과 여의치 않은 현상팽배에 대한 낮설음, 그것이 만들어낸 무능력감, 회의감, 상실감, 배반감 등의 심리형태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무능과 실패를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